

다산포럼

조영철



금융세계화는 이 시대를 규정하는 열쇠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가 이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컴퓨터, 인터넷의 정보기술과 교통기술이 발달하자, 국경 사이의 장벽이 낮아지고 국제거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보기술과 교통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화시대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9세기말~20세기초에도 지금 못지않은 세계화시대였다. 세계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는가를 평가할 때 흔히 쓰는 지표는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거래나 국제 자본거래의 비율 등이다. 이런 지표들의 시계열 자료를 20세기초부터 지금까지 그래프 그리면 U자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증기선과 유선 전신 기술만으로도 오늘날과 비슷한 수준의 국제 무역과 자본 거래가 이루어졌다. 20세기 중반 교통·통신기술은 20세기초보다 더 발달했지만 세계화 정도는 훨씬 뒤쳐졌다. 이것은 오늘의 세계화시대를

가져온 핵심은 기술발전이 아니라 다른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초는 저금처럼 투기적 금융자본이 세계를 휘젓고 다녔고 여기저기서 주식시장 거품을 만들어냈고, 외환·금융위

금융세계화, 100년 전과 지금

기도 빈발했다. 20세기초 금융세계화 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도 결국 대공황이란 금융위기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공황 이후 금융 안정성을 위해 금융을 규제하는 뉴딜체제가 성립하면서 금융산업 비중은 급감했다. 따라서 1950~70년대가 1910년대 보다 실물경제는 더 발달했으면서도 금융산업 비중이 더 낮았던 것은 뉴딜체제가 금융을 규제한 결과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산업 비중이 증대하고 국제간 자본거래가 급증한 것은 거꾸로 금융자유화정책으로 금융과 자본이동을 규제한 뉴딜체제가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도금시대(gilded age)라고 불렸던 20세

기초는 저금처럼 금융이 융성한 반면, 노동자 권리는 취약해 불평등이 심각했던 “모던 타인스”와 “위대한 갯츠비”의 양극화 시대였다. 1920~30년대 미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뉴딜 개혁이후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5%에서 불과 수년 만에 30% 수준으로 급속히 하락했고, 이 비중은 1942~1970년대 말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금융자유화 이후 미국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1990년대 말이

되면 45% 수준에 육박하여 20세기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미국 상위 10%의 소득 비중 증가는 대부분 상위 1%의 소득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 상위 소득자의 소득 비중이 1980년대 이후 급증한 이유는 주로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 정책으로 금융과 주주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과 영국은 불평등이 심화된 반면, 주주자본주의의 영향이 약했던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일본 등은 불평등이 오히려 소폭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존 메이나다 케인스(J. M. Keynes)는 비생산적 성격의 금융자산계층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며, 금융시장이야말로 군중심리의 영향을 받는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케인스는 국가가 국제 자본 흐름을 규제하지 않으면 권력은 민주선거로 선출된 정치인들의 손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인스를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케인스의 경고를 무시해도 될 만큼 지금이 케인스시대와 다른 것일까? 사람들이 케인스시대보다 더 현명해졌는가, 아니면 국제 투기자본의 탐욕이 과거보다 줄었는가? 고삐 풀린 국제 자본 흐름이 금융불안정을 증폭시키고, 국민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케인스시대와 지금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공공부문 비효율 문제는 개혁돼야지만,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자본자유화와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뉴딜 이전의 도금시대로 돌아가는 역사의 반복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된다.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설립 10년만에 끝내 청산되는 전남무역

전남도가 지난 1996년 설립한 (주)전남무역이 끝내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설립 10여년만에 법인으로서는 자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 권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전남무역이 사실상 ‘사망선’을 받은 현실이 안타깝다.

전남무역의 청산은 경영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전남도의 의뢰를 받아 전남무역의 경영진단을 실시한 한국 자치경영평가원은 청산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농수산물 수출 증대와 수출기반 확대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해 역할을 한 점은 있지만 수출업체로서 영업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전남무역의 청산은 예견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전남무역은 설립 이후 부실 경영 시비에 시달려 왔다. 돼지고기 중계무역을 벌이다 일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150억원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다.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중계무역을 치중했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전남도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남무역은 수출입 대행과 내수시장 개척 등 본래의 업무보다는 경영에 난맥상을 보이며 발전을 빚어왔다. 전남도가 부실경영을 방치하다가 10억원의 출자금만 날리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영세 농어민을 위한 수출입 대행이나 내수시장 개척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가들은 전남무역을 통해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고 소량이나마 수출길을 틀 수 있었다. 전남무역이 비록 경영위기에 시달렸지만 농수산물 수출의 선도역할을 해온 것이다.

영세 수출 농어가를 위한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남도가 수출농어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개척과 바이어 발굴 등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신설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전남도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수출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철저히 대비해야

오는 28~30일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첫 준비접촉이 14일 개성에서 열린다. 남북은 준비접촉에서 정상회담의 의제를 비롯 남북경로와 체류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실무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남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모든 외교가 그렇듯 사전협의와 준비가 중요하다. 남북의 특수관계를 감안하면 사전 조율을 통해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서로의 입장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접촉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4주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사전협의와 준비를 했지만 이번에는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상회담의 의제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경계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교류와 협

력, 공존과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에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략적 회담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치밀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정상회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남북의 준비접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치권도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범국민적 성원과 조광파적 지지기반이 뒷받침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無等鼓

이제는 누리에서 어느 정도 지위였지만 축구팬들에게 가장 담고 짜증난 여름밤은 한국과 바레인의 아시안컵 축구경기가 열린 지난 7월 15일이었다. 시종일관 담담하고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다가 1대 2로 골욕적인 역전패를 당했던 그날 밤은 열혈 축구팬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밤이었다. 21.4%의 높은 시청률만큼이나 실망감이 큰 잔패였다.

승패 여부는 결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알마의 스코어 차이로 이기느냐를 기대하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역전을 당했다. 오죽하면 광주시내 맥주집의 대형 스크린이 팬들이 던진 맥주병에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을까. 열기 넘친 축구팬들의 분노를 이해하고도 남은 경기였다.

하지만 이날 패배로 즐겁고 시원한 밤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다. 1천164명, 그것도 모두 한국 축구팬들이었다. 그들은 축구토도 매치게임에 참가한 6만 명중 2대1 바레인 승리를 예상하고 베팅을 한 사람들이었다. 최소 배팅액인

100원을 건 56명은 7천980원을 벌었지만 5만원을 건 3명은 399만원을 손에 쥐었다. 무려 78.9배의 고배당 적중률로 들어 2배제로 높은 수치였다.

13일 끝난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골프대회인 제89회 PGA 챔피언십이 열리기 직전, 영국의 도박업체인 레드브룩스는 우즈를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로 꼽고 2-1의 가장 낮은 배당률을

제시했다. 그 뒤를 20-1의 애니 엘스가 이었다. 2인자 엘스는 3라운드까지 우즈가 선두를 달리자 “내가 만일 골프 팬이라면 (최종 라운드를 보는 대신) 집에서 퍼팅 연습이나 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즈의 우승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모든 통계가 대회는 끝났다고 말해주지만 아직 18홀이 남아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고 우즈는 우승을 했다. 기대와 예상은 들어맞아도 혹은 맞지 않아도 그 자체로 흥미롭고 스포츠의 존재가치까지 높여준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처부장 khh@

기대와 예상



NGO 칼럼

장화동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소식은 그동안 술한 우여곡절에 마음 졸이며 애달랐던 국민에게 7년 전의 벅찬 감동을 주고 있다.

사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의한 주변국 간의 관계 개선의 속도에 비춰, 오히려 남북관계는 그 진척 정도가 너무 더디다.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을 충분히 감안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개선의 종속 변수로 치부하는 듯 한 정부당국의 태도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도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는 7년 전 클린턴 정부 말기와 너무나 흡사한 순서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작전계획 5027'에 근거한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까지 준비했던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이 '페리 프로세스'에 의한 적대정책 폐기로 전환되고, 그 연장선에서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다. 하지만 부시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대북정책은 강경 기조로 돌변했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남북정상, 민족의 힘 보여줘야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는 반세기가 훌쩍 넘는 역사적 전통의 통과리레라 치부하려도, 그때마다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남북당국의 발표대로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주변정세의 호전”에 따른 “적합한 시기”라는 북측의 제안을 남측이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안한 상황에서, BDA문제 해결로 6자회담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주변 정세가 한걸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된 듯싶다.

하지만 주변정세의 변화에도 6자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한 역할과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경제공동체에 대한 실천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 방안에 대한 정상들의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 힘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정상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나 포옹하던 순간, 7천5백만 전 민족이 시인이 되고, 통일운동가가 되고, 정치인이 되었다. 그 아름다웠던 시간은, 버디 길을 열고, 하늘 길을 열고, 땅 길을 뚫어서 년 방면 인원 10만 명이 드나드는 역사를 창조했다.

이제 7년 동안 준비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6·15공동선언실천 광주·전남위원회 집행위원장)



부엉이에 대한 오해



고양이와 부엉이의 공통점은 둘 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쥐를 주식으로 하고 과묵하고 은둔생활을 즐긴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이들 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마의 원광’, ‘마법사의 심부름꾼’으로 인식되면서 박해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푸대접을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야행성 동물이라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주로 활동한다는 것(밤은 귀신들의 시간과도 통하지 않는가), 눈에서 빛을 발산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도도한 모양새에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들은 사람이나 차를 보기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잠시 ‘뒹’하듯 쳐다보다 자기 할 일에 몰두한다.

부엉이는 얼굴이 큰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눈이 얼굴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그 얼굴을 보면 마치 눈을 부릅뜨고 노

려보는 사람 앞의 사전왕상이 떠오를 때도 있다.

또 부엉이는 이 큰 얼굴이 거의 180도 이상 자유로이 회전한다. 등 위에 얼굴이 ‘짤’하고 나타나는 것을 상상해보라. 처음 이광경을 접한다면 가끔이나 ‘악마의 원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포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고양이와 부엉이는 사람들의 귀한 식량과 전염병(페스트 같은) 창궐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수호천사 역할을 해왔다. 고대 이집트에선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기까지 했다.

단지 이들의 몸짓, 표정은 지극히 삶을 위해 진화한 것 뿐이다. 왜 그리 못마땅해 하는 걸까.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실패한 자영업자 위한 구직급여 등 대책 마련 됐으면

동네 슈퍼마켓이나 소규모 음식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최근 잇따라 들어서는 대형 마트를 선호하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종 이오삼’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 10명 중 5명 정도는 2명 성공하고 나머지 5명은 죄다 망하고 3명 정도는 현상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대로 보면 문 닫은 5명의 자영업자와 근근히 현상 유지하는 3명의 경우 점점 빛이 늘어나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평생 이같은 일의

에는 하지 않았던 탓에 실패할 경우 다른 대안을 찾아 제 2의 직업을 마련하기가 막막하다는 데 있다.

회사 근로자들이라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급여나 구직급여,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런 혜택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 재활프로그램 또는 창업(또는 창업 실패후)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강성규·광주시 동구 운림동

전공할 것도 아닌데... 예체능 '그룹 평가' 문제 있다

며칠전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같은 반 부모들을 우연히 학원에서 만났는데 모두 예체능 수행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학교 수행평가의 경우 일반 이론과목은 비중도 크지 않고 자료 찾거나 일기 등으로 특별히 과외가 필요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예체능 수행평가는 다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이와 학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못하는 아이만 점수를 적게 받으면 끝나다. 그러나 체육의 경우를 예로 들면 ‘팀웍’ 차원에서 그룹으로 평가를 한다. 이 때문에 못하는 아이는 주눅이 들

친구 관계까지 나빠질 우려도 높다.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어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겪거나 왕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음악도 비슷하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악기를 다루기 위해 학교 근처 음악학원의 경우 방학 때만 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별히 음악을 전공할 아이가 아닌데 많은 아이들이 악기 실력을 따로 쌓을 필요가 있을까.

작곡이나 노래로도 얼마든지 평가할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학교 음악시간에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들게 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이남영·광주시 서구 광천동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2-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부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